



제649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7월 31일)

‘뚱뚱뚱뚱, 가야 대장간’ 과 어린이 전시

조혜진 | 어린이박물관 | 18:00~18:30

어린이박물관 특별전 ‘뚱뚱뚱뚱, 가야 대장간’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식 전시입니다. 가야는 풍부한 철 생산과 수준 높은 철제품들로 소위 ‘철의 왕국’이라고 불립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가야의 역사를 현재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철’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들여다보고자 했습니다.

1부에서는 현재적 관점에서 철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 곁에 흔하게 볼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2부는 나아가 그러한 ‘철’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와 특성을 살펴보고 그 철을 잘 다루었던 가야의 대장장이들과 제련과정을 보여줍니다. 또한 3부에서는 가야의 신화를 비롯한 다양한 역사를 알아 볼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전시를 다 보고 나서 과거와 현재에도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철이 미래에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에필로그 공간을 마련하여 어린이들이 각자의 생각을 표현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전시는 현재에서 과거, 그리고 미래로 마무리됩니다.

어린이들에게 역사전시나 박물관이 지루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의 나와 관련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주먹도끼나 신라금관 같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물들이 현재의 나와 나를 둘러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이 지금의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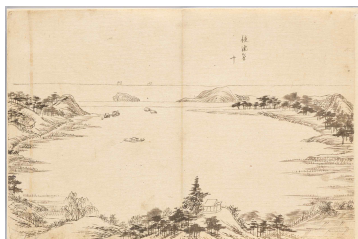
약 2천년 전 한반도 남쪽에 있었던 가야라는 나라가 어린이들의 지금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이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이 전시를 통해 어린이들이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시의 형태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면서 내용을 알게 되고 그 과정이 하나의 즐거운 놀이가 되도록 연출하였습니다. 어린이 전시는 참여자의 능동성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전시를 탐험하는 그 자유로움 속에서 즐거움과 유익함이 발생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전 <우리 강산을 그리다: 화가의 시선, 조선시대 실경산수화>(2) 화가, 그 곳에서 스케치하다.

오다연 | 121호 특별전시실 | 18:00~18:30

우리나라 실경산수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화가의 창작 과정을 심층적으로 조명한 특별전이 상설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진행 중입니다. 실경산수화는 우리 주변의 실재하는 산천을 그린 그림으로, 전시실에서는 고려부터 조선 말기까지의 작품 36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경산수화의 전통과 제작배경을 살펴본 제1부를 지나 제2부에 이르면 화가들이 실제 장소에 가서 자연을 마주하고 스케치한 작품들이 펼쳐집니다. 18세기의 문인 화가인 강세황姜世晃(1713~1791)은 장남과 차남의 부임지 일대를 유람하며 기행스케치를 남겼고, 화원 김홍도金弘道(1745~1806 이후)는 1788년 정조正祖(재위 1776~1800)의 어명으로 관동지역과 금강산을 사생하였습니다. 또한 정수영鄭遂榮(1743~1831)은 친구들과 함께 한강과 임진강 유역을 여행하며 긴 두루마리 그림을 그렸습니다.

초본草本은 처음 그리는 밑그림을 뜻합니다. 야외에서 짧은 시간에 그리는 실경산수화의 초본은 화가가 본 풍경의 특징을 요약적으로 표현합니다. 김홍도의 《강원지역 명승 스케치海東名山圖帖》는 초본의 특징 및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32면으로 구성된 화첩은 경포대로 시작하여 낙산사, 삼일포, 해금강, 만물초, 총석정 등을 거쳐 피금정으로 끝나는데 각 장면에는 장소명과 화폭의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김홍도는 수목이나 암벽 등을 스케치하면서 나뭇잎의 일부나 바위 질감의 일부분만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대강 표현했습니다. 후에 작품을 제작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린 부분을 참조하여 나머지 부분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후의 채색을 고려하며 각 소재 위에 “진한 붉은색”, “얇은 청색” 등으로 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초본은 김홍도의 속도감 있는 필치 및 경물의 특징을 묘사한 다양한 화법 및 사실적 구도 등을 보여주고 있어 완성도를 갖춘 하나의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김홍도, 《해동명산도첩》 중
<경포대鏡浦臺>, <만물초萬物草>,
조선 1788년 이후, 종이에 먹,
30.5×43.0cm,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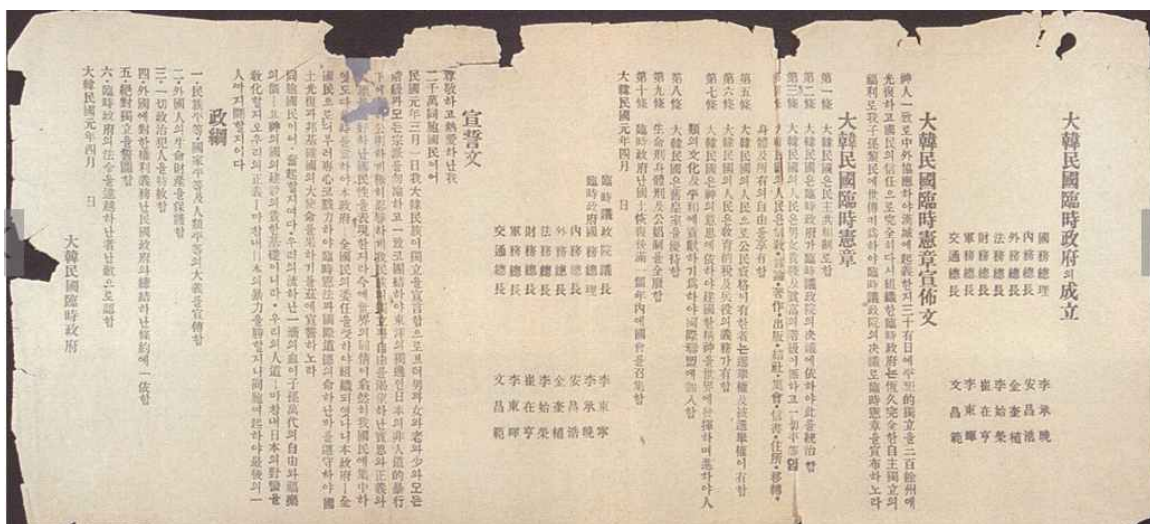
테마전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대한민국임시헌장-

김동우 | 115호 테마전시실 | 19:00~19:30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여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역사적 위상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임시헌장입니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임시의정원은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헌법과 정체체제를 제정 반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임시헌장입니다.

1910년 8월 22일에 맺어진 “한일병합조약” 1조는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게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1899년 대한제국이 공포한 “대한국국제” 3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무한한 군권君權을 향유한다’와 맞물려 있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이었던 손병희는 경성지방법원에서의 신문 과정에서 일본이 조선을 강제 병합함을 감상이 없다고 하면서 일제가 병합 후 조선인을 항상 압박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였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나라의 정체는 ‘민주정체’라 하였습니다. 즉 황제의 나라는 전복되었고 새 나라를 국민의 나라로 생각한 셈입니다.

3.1 운동 당시 독립할 나라를 ‘민주공화정’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들은 4월 11일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 하여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특별전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 (4) 신에게 바치는 봉헌물

노희숙 | 기획전시실 | 19:00~19:30

신에게 바치는 봉헌물은 숭배문화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신도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과의 연관성을 증명하거나 신앙심을 상징하는 물건을 신전에 남겨 두었습니다. 음식이나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물건이 신에게 바쳐졌습니다. 봉헌물은 인간의 신체 일부분을 표현한 테라코타 조각상, 작은 동물 모양의 테라코타 조각상, 봉헌자 자신을 표현한 청동 조각상, 칼이나 창 등의 무기, 신을 형상화한 청동 조각상 등 다양합니다.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이러한 봉헌물 가운데에는 문자가 새겨진 경우도 있습니다. 봉헌물은 신전 주변에서 조직되는 광범위하고 심오한 종교성을 나타냅니다.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러한 봉헌물은 에트루리아의 사회상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청동 조각상 중 물을 운반하는 사람을 묘사한 청동상은 짧은 치마를 입고 왼쪽 어깨에 항아리를 걸머지고 오른손은 허리에 올린 모습입니다. 인물의 복장과 자세로 미루어 물을 운반했던 어린 하인이나 희생제의 수행원으로 보기도 합니다.

머리, 다리 등 인간의 신체를 표현한 테라코타 조각상은 특정 질병을 관장하는 신을 위해 세운 신전에 주로 봉헌되었습니다. 특히 성기는 자녀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봉헌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전에 테라

코타 동물이나 청동 조각상을 바치는 것은 아르카익 시기부터 에트루리아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제물로 바치는 동물을 대신한 동물 모양 조각상은 널리 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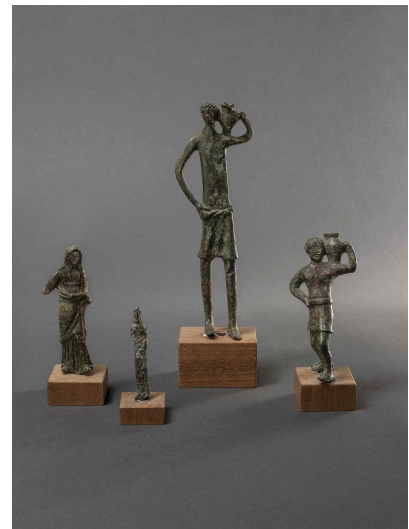


그림 1. 봉헌 조각상. 기원전 4세기 말-3세기 전반, 피사-리보르노 관할 문화유산관리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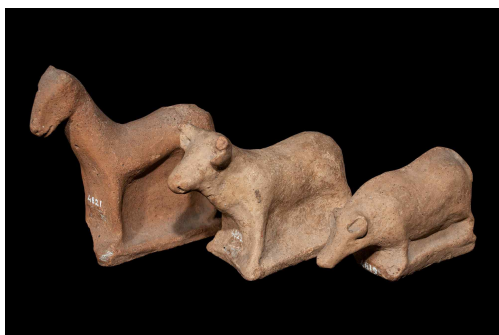


그림 2. 봉헌물(말, 소, 돼지), 기원전 3-2세기, 피렌체국립고고학박물관